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자기 심봉을 놓치지 않고 관하면서 생활해야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살려면...

문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참혹하리만큼 가해지는 대자연의 시련들이 더욱 새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가까운 여러 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힘들어 하는 걸 보면서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 것 같습니다? 누가 대신 마음을 내 주고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한생각이 여러분을 괴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사실이니깐요.

정녕코 제각기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체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거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공생이러야 되고, 이 몸을 보더라도 공생이러야 하고, 몸의 움직여림을 봐도 공생이러야 하고, 몸의 움직여림을 봐도 공생입니다. 그리고 공채이고 공식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해 드렸는데 그것을 어느 때는 백 번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때가 모르게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고 차원에 따라서 분별에 따라 서입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세상 진리라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리는 구리하고 철보가 되고 금은 금하고 철보가 되고 무쇠는 무쇠하고 철보가 되고 철은 철대로 철보가 되고, 이렇게 제각기 천차만별이 다 그렇게 깨리꺼리 만나서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근본은 한군데서 나지만 갈래갈래 차원대로 켜리꺼리 뚫쳐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살기 힘든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은 마음내는 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것저것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옳다 이렇게 가면 공범은 못됩니다. 그래서 천차만별로 여러분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만 올랐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삼 분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할 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여유가 없는 대로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소꿉장난하다가 하루 저녁에 해가 지면 다 헤어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아주 모르는 분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다고도 생각 마시고 그

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용을 하고 공채로서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면 그대로 일체가 속속들이 다 연라처가 되는 겁니다. 공심으로 공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깐 우습게 듣지 마시고 우습게 알지 마시고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이겁니다. 자기 껍데기를 믿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체를 진짜로 믿어야 이겁니다. 지금 내면체가 아니라면 일체 부처님도 상봉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자 줄 수도 없고 먹어 줄 수도 없고 아마 줄 수도 없고, 여러분한테 먹고 잠자고 그대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외부의, 내부나 외부나 다 살고 또 여러분의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데에서 남이 섭섭지 않게 생각하고 유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뭐 그런다고 뭐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렇게 버릇을 하면 모두 스승이 될 단 애깁니다. 그렇게 해 보지 않던 분은, 죽어도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 자기 중심을 항상 확고하게 세워 놔야 합니다. 자기가 살려면 자기 자리를 자기가 꼭 지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계적으로나 지구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심봉을 놓치지 않고 항상 관하시면서 생활해 나가시기를 꼭 당부합니다. 자기는 자기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가족도 사회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 아니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나?

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에 대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출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결

혼을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항상 갈등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는요.

답 공부하는 것은 출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겁니다.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다 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가정을 버려야 하고 부모형제에 대한 애착을 다 버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와서는 나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 살다 가는 건 다 마찬가지로인데 스님네들이,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윤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데만 걸리지 않는다면,

힘 나는 데에 사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래서 때로는 더 열매이는 수가 있고 그래도 이 도리를 공부할 열심히 하면 펼쳐지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문 스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밝힌 뒤에 책을 봐야 글자에 붙어가지 않고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의문이 있으면 되놓고 합니다만, 우연히 들었던 법당에서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자꾸 의문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저의 근본을 뜻하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그대요. 우리 공부하는 거는 딱 한 구념으로 들어가서 틀어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념이러야만이 진정코 믿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일거수일투족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놈한테,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원력도 오직 한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일체 모든 흙이든지 물이든지 구름이든지 허공이든지 모두가 일체 살아가는 게, 하다못해 꽃 한 송이도 거기서 나오지 만 데서 나오는 게 일체. 한군데서 나오지. 그래서 지금 들은 것처럼 '세상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고 제자가 대답을 했더니 은사 스님이 그렇게 물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어렸는고 안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어떠한고?' 하고 물으니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니까 '그 하나는 어렸는고.' 하고 물었던 거죠. 모든 게 하나 아닌 하나예요. 이 모습도 숫자가 뭐 열기설기 수많은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몸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몸통일 보면 깨끗한 게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세상이 공해서 없는데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보신다면 다 아실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급게 가느냐, 좀 거북하게 가느냐, 아주 거북하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로 죽고 불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마음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지 모릅니다. 마음은 한 찰나에 전 우주를 도니가 말입니다. 그리고 따르므로 윤회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따르므로 분별을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공용이라고 그러죠. 공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 공채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식을 한다는 얘깁니다.

결전엔 원식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알기 쉽게 누구누가 다 알개끔 공식인 것도 똑 같습니다. 이 몸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으로 산다는 걸 아시죠? 공용으로 산다는 것도 아시고, 공심이 돼서 천차만별의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것도 아시구요. 그러면 그거를 퍼 집어서 하나로 공식으로 뚫쳐서 우리가 여여하게 해 나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차원에 따라서 살지만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 들었어도 이해가 가질 않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넉넉히 가는 분도 있고, 이해를 아주 잘해서 아주 여여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여하게 하고 알고 가고 보고 이러는 것만, 그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참보해야 됩니다. 그대 진실을 그대로 실현을 해 나가는 거죠.

대로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편리하게 하시고 무조건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놓고, 편안하게 말입니다. 거기다 놓지 않으면, 그 기동 자기 주장 자에다 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가 통산처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놓고 가되 만약에 지구의 어느 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일이 생긴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내 마음이 공심으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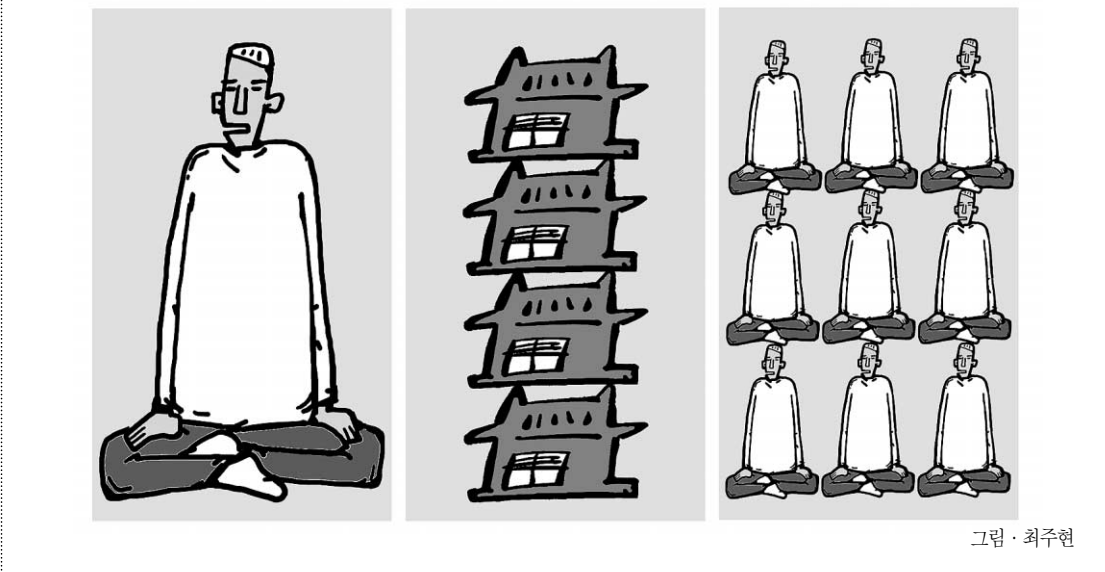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자리에서 오기는 어디로 왔으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 있으랴!

이런 거 있죠?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죠?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이가, 아니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 갈 자리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다 치워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기도보다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세상이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기는 어디로 왔으며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세요. 그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

하나도 없고 또 더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 아주 고귀한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럿이 그렇게 견뎌도 공생입니다. 모두가 같이 살고 있던 말입니다. 근데 공생이라구요. 따로 떨어져서 공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주장자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장자를 놓고, 대나무 한 주장자를 놓고선 빈 속,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죠? 아직 속 빈 그릇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넣어라. 넣으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요 들어가는 것도 그 자리다. 그것이 죽비 가운데를 피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바다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깐 나 하나를 배우는 데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건 믿음이 이걸 내면에, 이거를 만약에 대 주장자라고 하고 이걸 믿었다면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열리게 하고 누구든지 그 열매를 제 나무에서 익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런 아주 큰 나무도 무지하게 큰 나무인데 그거를 아예 요만하게 좁쌀 알갱이처럼 해서 우주를 담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생각하면 엄청난 문제지만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깐 그 배우는 과정에 오직 너 하나가 있다면 너 하나는 너 하나에다 넣어라, 깨내는 것도 너 하나에서 깨내라 이겁니다.

그러게 양 무제가 공덕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달마 대사를 미워서 죽였는데, 죽어서 묻었는데 신발 한 짝은 무덤 속에 놓고 신발 한 짝은 들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 29면에서 계속

간 아무리 내가 보잖았잖아 하더라도 그 그릇을 얘기하는데 꼭 그릇 속에다가 그걸, 그 말을 넣고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을 들으려면 책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아주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을 보되 내가 책을 보지 말고 책이 너를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는 사이 없이 봐야지 내가 책을 본다고 그리고 안다 그리고 보지 마라 이 소리죠. 오직 거기서 보게, 너를 형성시켰으니까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이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별말 아닌 거같이 이렇게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코 믿고 해야 할 것은 자기만이 자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 누가 대신 믿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 일을 서산 대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오직 놓고 그 하나를 믿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과거의 너와 현재의 너가 둘이 아니니까 하고 한데 합쳐 주는 소리가 그렇게 컸단 얘기죠. 그래 우리가, 내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못났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고개를 들지 말라. 고개를 들지 말고 오직 하나만, 그 하나가 커지는 사이 없이 커져야 좋아하는 사이 없이 줄어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소리가 견성의 소리요, 만나서 배우는 그것이, 그냥 없는 색경이 거기서 절로 나와서 등글게 에너지가 주장자가 돼서 딱 나온단 성불입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내 자리를 내가 찾고 내면 자리를 정말 큰 공치기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놓고 공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안 들으면 정말 크게 깨칠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못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안에서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거고, 하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거고, 누가 하는 능이 없이 그놈이 다 형성시켰으니까 그놈이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도 그놈이 다 움직여주게 에너지를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사는 거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서 끊어지고 어떻게 돼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아닌 자기 한 구녕에 넣고 꺼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되 보지 마라 이런 소리죠. 책을 보되 보지 마라. 그래서 이전에 금강경이고 뭐고 다 집어 팽개치고 태워 버리고 한소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태워 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써 모든 거를 집어넣었으니 없는 거죠. 한번 봐서 집어넣어 버리니까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두 방편으로 배울 거는 배우고 나가면서는 배운 사이가 없고 한 사이가 없고 했다는 말이 없다 이겁니다.

믿고 말기만 해도 되는지요

문 스님께서서는 세 번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도 직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주인공에 믿고 말기는 것으로 세 번 죽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스님께서 해 오신 바와 같이 목숨을 떼어 놓고 들어가야 할까요?

답 주인공을 일심으로 발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거지든 거지가 아닌듯, 남자든 여자든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라고 할까요, 내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라고 할까요? 어느 동자가 말입니다. 부처님과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동인에 부처님께서 동자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아! 내 발과 네 발의 차이가 어떠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동자의 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고?" 하고 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동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으로 하나가 되고 부처님이 내게로 오면 나와 하나가 되니 어찌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까?" 했

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리 가도 하나로 저리 가도 하나라니 말입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부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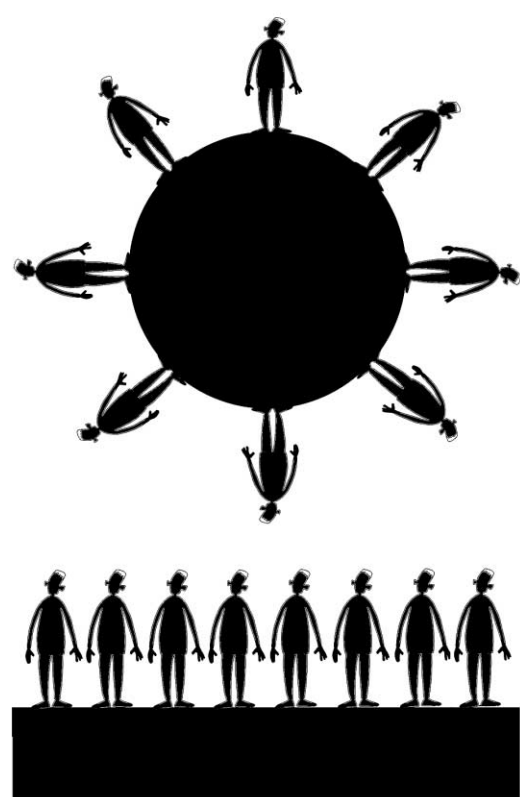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서 또 물었습니다. 이 동자는 "박 녀름이 담 너머로 넘어가서 박이 열린 까닭입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 또 "그래 박은 여여한가?" 했더니 "박은 제 나무에서 익어서 맛이 좋습니

오직 자기 아닌 자기 한 구녕에 넣고 꺼내라

다."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만공에 꽃이 두루 피고 향기가 두루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냥그냥 익혔다." 했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연결해

서 잘 들으셨으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짐작하게 그 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경전으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둘이 아닌 고로 그 하나는 담 너머로 박 넣을 넘어가서 박이 열린다.' 그 박도 익었어야죠. 또, 그래야 재 맛이 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음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없는 억겁으로 진화해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군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까.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손수건을 하나 틀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 주니까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같이같이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걸 나와서 만나는데 그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는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한마음 속에,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거기다 맡기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참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 놓고 '네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틀러서지 마십시오. 겉으로도, 말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귀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올 것입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리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즉 무심과 유심이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것과 육신이 움직여려는 것과 동시에 돌아가죠? 어디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눈과 귀가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어디?

그러니까 동시에 약도 선도 거기 놔라. 약한 게 '선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놓고, 선하게 돌아가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든 거를 한군데다가 놓는 것이 자기가 공해서 본래 없는 것이기에 따로 없다 이 소립니다. 따로 내가 없는 데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돼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내가 따로 없으니까' 하고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없는 반면에 모두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공생이며 또는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 하고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끔 하려면 겉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서 '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게 들고서 내는 그 무쌍한 만법이, 그대로 더불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돌이 아니게 말합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 속으로 확실히 알려면 거기다가 또 놓고 돌아가야 하니까, 또 두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세 번째도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가 인연에 따라서 손수건을 쥐었으면 손수건을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맘을 댈는 겁니다. 어디를 찌든지, 그러면 나와 수건과 인연이 마주쳤기 때문에 찌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전의 작용입니다. 발전의 작용! 그렇기 때문에 나쁜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땀이 나면 손수건을 들고, 팔소리를 내려면 마르기를 들고, 일체 만 가지 만물이 다 아님이 없이 나타나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또 놓고 가야 합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구경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전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지도 모를 거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공해지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동자가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발과 그러한 동자의 발과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 받는 중생의 앞일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가면 영원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픈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아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 곳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을 가서 점을 봐도 시원치 않는 분
- 하는일이 되는 노릇이 없고 덕과복이 없어 고통에 사시는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꿈에 영가가 자주 보이시는 분

"혼자서 고민 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님을 친견하면 큰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됨을 받으지만 뒤떨어지는 노릇이 없고 내뺏어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장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우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결계 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 의 지중환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약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게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셨지만 편안 한 마음으로 꼭 한번 체험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점 양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금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흥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 대형주자장완비
- ▶ 점심공양 가능
-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흥천온천, 천년고찰 수취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 매표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암산 연화사**
전화: 033)433-1815, 433-2009 팩스: 033)433-5206

당 하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어느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 인술린 분비촉진, 단성피로
- ☞ 복용 15~20일후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 복용후 효과 있음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성인당 특판부**
주른 및 상담전화 : 080-621-6666